

## 인생 3막

### 변화를 사랑하는 배우, 오태돈

#### 변신의 시작, 대학원 진학

본사 영상취재/편집기자에서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로, 다시 프리랜서 배우로 인생 3막을 열고 있는 오태돈 사우에게 “변신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바깥양반 덕분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피식 웃으며 입에 넣으려던 치즈돈가스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공연 후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1998년 MBC를 그만둘 당시만 해도 남편은 고시 공부 중이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타면 화장대 위 바구니에 만 원짜리 지폐 더미를 넣어두었는데, 남편은 자유롭게 꺼내 썼어요”라고 했다. “그러면,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만둔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요. 제가 그만둔 후에 다행스럽게도 합격한 거예요. 같은 해이긴 하지만” “MBC가 서운

하게 한 게 있었나요?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게” “아뇨, 전혀 없어요. 오히려 MBC는 저희 부부를 먹여 살려 준 고마운 친정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왜요?” “뉴스 영상편집이 나름대로 흥미롭기도 하고 뿌듯함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1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졌나 봐요. 제 성격이 지루함을 못 참나 봐요. MBC를 그만두고, 연세대 영상대학원에 다니면서 석사학위(MFA)를 받았고 서강대학교에서 영상예술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14년간 영상제작과 교수를 하면서 취업지원센터 소장, 국제협력처장 등 여러 보직을 맡았고 학생들과 수업 외에도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제작을 했어요. 행복했고 즐거운 추억이 많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년 퇴임 65세라는 나이를 생각할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학생들 역시 예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2019년 희망퇴직자를 구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60세가 되기 전 새로운 일에 대한 토대를 다져야 하겠다는 생각에



희망퇴직을 했지요.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2월이었습니다” (2면에 계속)

#### 본사 소식

### MBC 제21대 대통령 선거방송 <선택 2025> 시청률 압도적 1위

MBC의 대선 방송 <선택 2025>의 수도권 시청률이 11.7%로 타 지상파인 KBS1(3.6%)과 SBS(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밤 8시 무렵의 순간 최고 시청률은 20.6%였다. 이어진 ‘특집 뉴스데스크’도 14.7%로 올해 방송된 메인뉴스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또한, MBC가 AI 전략 자회사 ‘도스트 11’과 함께 만든 ‘출구 조사 카운트다운’ 영상인 ‘그날, 함께 지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김구 선생의 육성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는 등 AI의 방송활용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허지은 선거방송기획단장은 “AI 기술이 공익적 콘텐츠 구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MBC PLAYBE KidZania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키자니아 서울

키자니아 하노이

키자니아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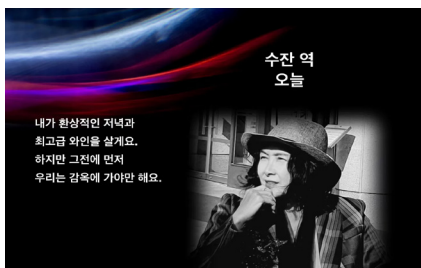
MBC 임직원 및 사우회 40% 할인

###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시아 모노드라마 컬렉션’에서 단독공연

2019년 영상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다룬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의 BTS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영상들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였다.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학 3학년 때 영어연극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는 거였다. “내 마음을 뛰게 했던 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잖아?” 하고 망설임없이 그녀는 배우가 되기로 했다. 1년간 연기수업반이 있는 시니어 모델 학원에 다니며 연기 공부와 함께 패션, 뷰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분야에 흥미가 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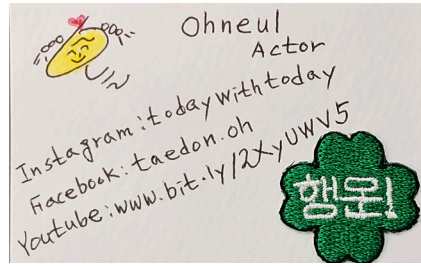
연극<베키샤>에서 수잔역

이곳에서 처음으로 연극무대에 올랐다. ‘강봉식/이필레 부부가 30대부터 70대까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휴먼 코미디 ‘당신만이’. 여기서 30대 필레역을 맡았다. 이어서, 또 다른 곳에서 연기 워크숍에 참여하며 연기 공부를 하던 중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상업연극 ‘베키샤’에 캐스팅이 되었다. 우아하고 고집스러운 엄마인 수잔 역할이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서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보엠씨어터 개관식 때 ‘사라 바트만을 위하여’를 공연했는데 기자인 태현 역을 맡았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열린 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에서 ‘아시아 모노드라마 컬렉션’ 모노드라마 ‘메이드 인 홍콩(Made in Hongkong)’을 단독 공연했다. 공연무대와와는 별도로 준비해간 한복을 입고 거리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외국인들을 만나 대화하며 손 글씨로 만든 한정판 수제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명함에 쓴 ‘오늘’은 오태돈 사우의 예명(藝名)이다.



손 글씨로 만든 한정판 수제명함

이 밖에도 독립예술영화 ‘계단 너머 집’에서 공양주 보살인 경자 역할을 했고 음악극 ‘조선협객’에서는 기생인 옥란의 역할을 소화했다. “연극이나 독립영화, 광고에 출연하고 나면 늘 다음에 더 잘하고 싶다”는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오늘, 바람처럼 (@likethewind3773)’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린다면서 화면을 보여줬다.



독립예술영화 ‘계단 너머 집, 출연진과

살아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 그녀는 이틀테면, 알랭 들롱, 오드리 햅번, 윤심덕, BTS의 지민 등 누구든 상상으로 무대 위로 소환한다. 실제로 연극 ‘베키샤’에서 그녀는 수잔의 젊은 연인을 누구로 가상으로 캐스팅할까 하다가, 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죽은 프랑스의 미남 배우 ‘가스파르 올리엘’

을 떠올려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그녀가 나날이 행복한 이유

“저는 늘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게 살려 하죠. 요즘엔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요. 그래서 ‘Everyday Happy’예요.”

그녀의 정식 직함은 ‘프리랜서 배우 겸 영상감독’.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고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좋아하고 재미가 있어서 선택한 인생 최고의 일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의 삶을 연기함으로써 얻는 인생의 깊이와 통찰력 때문일까? 이목구비 또렷한 미모의 얼굴에서 난향(蘭香) 같은 여배우의 아우라가 은은하다.



음악극 ‘조선협객’에서 기생 옥란역

“흘러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보다 바로 지금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삶에 대한 관점을 밝힌 문장을 던져놓고 그녀는 발걸음 가벼이 광화문 쪽으로 걸어갔다.

## 햇감자 캐던 날, 「원당 텃밭」의 풍경화

일상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불쑥 찾아온다. 그렇지만 1년에 딱 한 번, 햇감자 캐는 날은 그렇지 않다. 특히 봄에 감자를 심었던 이들에겐 하지(夏至, 양력으로 6월 21일) 무렵이 되면 감자를 캐야 할 때가 온 날이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하지가 지났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반, 오전부터 피약별이 내리쬐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71번지, 박종규 사우(사우회 전 부회장)의 원당 텃밭(1600평)은 햇감자를 캐러 모인 87세의 김진호(전 포항 MBC사장) 사우를 비롯한 15명의 월산회(월요일 산악 모임) 사우 회원들로 활기가 넘쳤다.

사우들이 켈 감자밭은 길이 10m쯤 되는 이랑 두 줄. 미리 감자 줄기를 걷어낸 상태여서 이마를 드러낸 감자도 보인다. 회원들은 각자 편한 자세를 취했는데 어떤 이는 쭈그린 자세로, 어떤 이는 ‘둥글고 빨간 엉덩이 방식’을 깔고 앉았다. 호미로 흙을 뒤적이다 굵은 감자가 나오면 “아이쿠 이놈 봐라, 손바닥만 해”라고 환호성이다. 다른 회원들은 고개를 내밀어 소리 나는 쪽을 본다.



고양시의 21개의 농장중 대표적인 원당텃밭



“야, 이거 좀 봐. 크다. 커”



피약별을 이겨낸 은빛 머리칼

몇몇 회원들이 외바퀴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감자 줄기를 치우고, 수확한 감자를 텃밭 정자(亭子) 앞에 모아 놓았다. 밭에서 감자 캐기에 진력이 날 때쯤 회원들은 옛 추억을 쏟아냈다.

“여름방학 때 어머니가 솥에 감자를 쪄 주면,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참 별미였어” “그렇지요. 이런 감자여야 제맛이 나지요” “우리 집은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 학교 갔다 오면 부엌에서 감자 냄새부터 맡았으니까”

“이런 감자는 마트에서 사는 감자와 차원이 달라.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아닌 자연의 힘으로 자란 하지감자 맛을 요즘 사람들이 알까?” “하짓날은 감자 캐 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라는 속담은 알 턱이 없겠지”

텃밭 정자 앞에 모아둔 감자가 수북했다. 감자는 크기에 따라 공개적으로 분류해 참석한 회원 숫자대로 나누어진다.

밀양박씨 선곡공과 종친회 회장인 박종규 사우의 「원당텃밭」은 고양시 전체 21개의 주말농장 가운데 시설이나 크기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1년 임대료 15만 원. 텃밭을 분양받은 일반 시민이 80여 명이다.

이런 텃밭에 감자를 심고 수확할 수 있게 해 주고 오늘 생맥주와 닭볶음탕 점심값을 쾌척한 박 회장님 덕분에 올여름, 햇감자를 캐면서 서로 고맙고 소중한 함을 느낀 하루였다.

# 뭘 해도 AI를 이길 수 없다면 ..... AI와 사귀자!



김용조 강사와 줌으로 교육받는 30명의 사우

국내 언론사 사우회 가운데 최초이자 올해 MBC 사우회의 중점 사업인 「AI, 나도 할 수 있다!」 사우를 위한 맞춤형 AI 무료 특강이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성공리에 끝났다.

1차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사우회 사무실에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고, 이어 2차 교육은 지난달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ZOOM 방식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받은 사우는 1차 20명,

2차 30명으로 총 50명이었다.

이들 사우는 이구동성으로 “앞으로는 뭘 하든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다”면서 “앞으로 AI와 잘 사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차 교육을 받았던 이향진 사우(보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트렌드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생활에서 AI를 활용할 기본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면서 “ChatGPT 교육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음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작사, 작곡도 해 보는 중”이라고 했다.

2차 교육을 받았던 또 다른 사우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정확한 지시어를 주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AI에게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느낀 것은 AI와의 소통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소통 수단으로써 언어의 중요성은 인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2년제로 운영되던 중세 대학은 1학년 때 문법, 논리학, 수사학 등 말하기와 글쓰기만을 가르쳤다.

물론 이번 사우회 AI 교육의 목표는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잘 몰랐을 때 당했던 생활의 불편함을 AI 시대엔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이번 AI 교육을 오래전부터 기획한 이재은 사우(전 충주MBC사장)는 “휴대폰으로 기차표를 예약할 줄 알면 편리하고 뿌듯하듯이 AI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AI를 알면 일상생활이 무지하게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AI를 모르면 한글 문맹처럼 AI 문맹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우들이 AI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따르면 AI를 경험해 봤다는 60대 이상은 2022년 21.1%에서 지난해 43.5%로 2배가 늘었다. 중장년을 겨냥한 AI 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은 컴맹이라고? 그런 소리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차 AI교육

## “AI 모르면 문맹입니다”

- 휴대폰을 배워 AI 전도사가 된 파리특파원 이재은

MBC사우회 AI교육을 제안했던 이재은 사우. 그는 파리특파원, 충주 MBC 사장을 거쳐 TV조선의 영상비전 회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청와대 출입을 13년간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력을 보면 첨단소통기기 얼리어답터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특파원 5년간 언어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사진 촬영에 빠진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더구나 남들에게 시키면 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인터넷, 휴대폰, 유튜브, AI 등 첨단 소통 기기를 상세하게 배울 필요까진 없었을 듯하다.

그런데 특파원 초년 시절 관공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글을 모르니 무슨 내용인지 알 턱이 없어 답답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오면 옆집으로 달려가 읽어달라고 하던 시골 어머니들이나 본인이 다를 게 없었다. “한글을 모르는 거나 휴대폰을 모르는 거나 다를 게 없어. 똑같은 문맹이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후배들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배웠고, 유튜브, AI를 배우고 익혔다.

설거지할 때 개수대 구멍이 막히거나, 자동차 필터를 갈아낄 때, 로봇 청소기를 사서 처음 사용할 때 굳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다. 유튜브나 AI에게 물어서 혼자서도 잘 해결하니까 말이다. 얼마 전에는 AI에게 본인의 예전 기도문을 읽어 화가인 아내가 교회에서 사용할 3분짜리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놀라자빠질 뻔했다. 요즘 정세까지 가미해 기막힌 기도문을 만들어줬으니까.

하여 이러한 AI의 능력을 모르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는데 동년배들을 만나보면 거의 AI 문맹이었다. “자식들한테 사사건건 물어볼 수도 없을 게고...은행거래, 기차표 예매도 할 수 없을 텐데...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측은지심이 그로 하여금 이번 AI 교육을 제안하게 했다.

알고보니 그가 태어나고 3개월 뒤, 그의 부친은 6.25 참전중 휴전을 앞두고 전사했다. 전쟁터에서 별이 되신 아버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은 아직은 AI로 담아낼 수 없었다. 국립묘지를 찾아가 마음속으로 아버님을 꺼안을 뿐이다.



이재은 사우의 행복한 가족모임



복원한 아버님 사진



대전 현충원을 찾은 이재은 부부

## 「영상 80」

사우회 「영상80」 모임이 지난 6월 18일 <오마카세 합점점>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조항민 외 8명이 참석해 서태경 사우의 파리 여행담, 전재철 사우가 만든 AI의 노래 등 서로의 관심사를 듣고 AI 교육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모친을 보내드린 조항민 사우가 찬조했다.



## 「청죽회」

사우회 「청죽회」(시설부문)는 지난 달 12일 연신내 쿠우쿠우 뷔페에서 2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모임을 가졌다. 청죽회는 외환 위기때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사우들이 부산 통도사 등으로 마지막으로 단체 여행을 하던 중 그 인연을 이어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되었다.



## 「월산회」

매주 월요일마다 산에 오르는 월산회가 결성된 지 올해로 17년 째다. 「월산회」는 지난달 9일 예외없이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평 자라섬을 둘러길 삼아 걸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경험했다. “푸른 날엔 푸르게 살고 흐린 날엔 힘껏 산다”는 양광모의 인생예찬을 실천한다.



## 「6080모임」

60년대 입사 80살이 넘은 기술 부문 모임인 「6080」이 지난 5월 30일, 고양시 원당 텃밭 농장에서 30명의 사우(90세 4명 포함)가 모여 오리 백숙을 만들어 먹었다. 이 모임은 2015년 김수량 전 사우회 회장이 선배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부터 처음에 33명에서 1년에 5번 만나는 정기 모임이 되었다.





사우탐방

# 농부로 변신한 방송PD 장덕수

## 구안와사가 만든 '농부의 탄생'

경기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392번지. 운악산이 바라보이는 연인산 자락 2천 평 가운데 천 평에서 무공해 포도 농사를 짓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꺾꺾 웃음을 짓고 반가워했다. “웬일로?” “여전하구려, 장 선배의 웃음은...” 그러자 다시 꺾꺾 웃었다.

그가 웃음을 그치고 “내 이야기는 사우들에게 많이 알려져서...”라면서 사우회보에 소개되는 걸 꺼렸다. “그러지 마세요. 장 선배가 종편 제작 이사로 있을 때 지상파와 다른 종편에서 모두 퇴짜 맞은 외부 제작사의 「나는 자연인이다」 기획안을 채택해 주고 방송 프로그램으로써 틀을 잡아주지 않았나요? 그런 걸 자세히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본인이 포도밭 농부가 되어 자연인으로 살아 가고 있으니, 장 선배는 명실상부한 인생 2모작입니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무농약 포도

잠시 침묵하던 그가 “그럼, 내가 지역 농협지에 기고한 ‘농부의 탄생’이라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테니 먼저 읽어 보소”라며 또 꺾꺾 웃었다.

그 글에 따르면 본사 PD로 맹활약 하던 40대 초반, 그는 왼쪽 얼굴이 일그러지는 구안와사가 왔다. 프로

그램 제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아내는 그의 건강을 위해 주말 만이라도 전원생활을 하자며 무리를 해서 지금의 땅 2천 평을 은행 용자를 얻어 매입했다.



흙 속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태포도밭

이 사실을 안 동네의 한 농부가 땅을 빌려주면 포도밭을 만들어 포도 농사를 짓고 10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도시에서 자란 데다 아는 건 방송 일 뿐. 농사는 쟁쟁이던 그는 그렇게 하여 천 평을 빌려주고, 나머지 땅에 부부의 임시 주거지와 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텃밭 농사를 지었다. 덕분에 그는 구안와사의 재발도 없었고 건강이 좋아졌다.

## 천 평의 포도밭을 어이하꼬? 열치기 농부의 도전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흰 망아지처럼 시간이 흘러 12년째 되는 해, 농부가 힘에 부친다면서 포도밭을 그에게 넘겼다. 당시 50대 중반을 넘기고 종편 MBN의 제작 이사로서 방송 제작을 총괄하는 동시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방송 프로그램으로써의 정체성을 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렇다고 천 평의 포도밭을 방치할 수 없었다. 골프를 끊고 주말 농부가 되어 포도밭에 갔다. 다른 포도 농부에게 배우며 2년을 버텼다. 하지만 방송에 전념하든가, 포도밭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가야 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포도밭을 가꿀 수 없었다. 결국, 포도 농사꾼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대로 실천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보겠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열치기 농부도 농부지만 노동강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일을 끝내면 삭신이 녹는 듯했다. 마치 나뭇짐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것 같았다. 거기에 포도를 판매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무농약 포도 농사를 지은 덕에 일정량은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었으나 수확량이 한결같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는 “고백하건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장사가 아닐까?” 하였다. 남은 포도는 포도주를 담근다. 보통 3~4백 병(브랜드명 판미동)이 나오는데 팔지는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마시거나 선물한다.



땅심이 살아 천연의 맛과 향을 품은 포도

포도밭이 깊은 산의 자락에 있고 무농약이다 보니 흙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건 가장 큰 메리트다. 좋은 포도주는 포도밭의 좋은 흙이 바탕이 된다. 이를 프랑스어로 ‘테루아르(terroir)’라고 한다. 포도밭 표면 토양과 그 아래의 흙과 바위,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지역 기후와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 무농약으로 살아난 건강한 흙과 미생물 그리고 순수한 향과 맛

그의 포도밭 테루아르는 건강해서 지렁이가 우글우글하다. 이를 잡아 먹으려고 멧돼지가 몰려오고 두더지도 덩달아 밭을 들쭉서 놓는다. 산토끼들이 포도 새싹을 갈아먹고 뱀은 수시로 출몰했다. 그런데 요즘 그 많던 뱀이 갑자기 사라져 원인을 찾는 중이다. 건강한 포도밭은 야생동물로부터 표적이 된다. 하지만 무농약 자연농업 덕분에 땅심이 좋아져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포도알은 천연 당도가 뛰어나고 자연의 순수한 향과 맛을 머금고 있다.

포도 농부, 장 PD는 안빈낙도보다 육체적인 노동의 삶을 선택한 현대판 농본주의자다. “언제까지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체력적으로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몸이 허락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라고 엄숙한 목소리도 잠시, 전화 저편에선 연이어 낙천적인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힘닿는 데까지 포도밭을 일구겠다는 장PD

카메라 대신 팬이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만드는 그는 땅위에서 계절과 함께 가장 진실한 생명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이제는 시청률 대신 햇살과 바람의 점수를 받으며 진짜 그만의 삶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자연의 화면에 마음을 치유하면서...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집중취재

재미있게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김동한 사우가 장기입대한 수영장이 딸린 대관령 펜션

김동한 사우의 조르바처럼 살아가기

지난달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연령대의 43%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고 주어진 여건 또한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 욕심을 버린 방하착(放下着)의 삶을 살아가는 김동한 사우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편집자 주)

어른 말씀에 틀린 게 없다. 인생 최고의 일은 재미있게 사는 일

“영무야, 재미있게 살아라!” 큰어머니는 병문안을 간 나를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불러 조용히 이르셨다. 내게는 큰어머니가 아흔 살 평생 재미있게 사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보였으므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사촌, 형제, 부부, 친구,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너무 안달복달 애쓰며 살지 말라는 당부 같았다. 그래서 ‘힘내시라’ 손잡아 드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뿐이었다. 그러기는커녕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지금 다니는 알량한 일터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우회 단합대회에 처음 나갔을 때였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보도국 김동한 선배가 들려주는 자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충격이었다. 큰어머니가 당부하신 말씀과 토씨 하나 거의 틀리지 않았으니까.

김 선배(이하 그)는 6.25 전쟁 중인

1951년에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아버님을 잃었으므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노라, 할 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전쟁에서 외환위기가까지 슬한 현대사의 굴곡을 견디며 살아온 이가 어디 그이 뿐이겠냐만 재미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는 그리 흔치 않을 성싶었다.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결단, 마음이 부자로 살아가기

하루 막걸리 3병은 기본이다. 70대 중반이지만 늘 불그레한 안색으로 50대의 건강한 사람 못지않다. “건강 비결이 무어냐?” 물으니,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입꼬리를 귀밑에 붙이고 웃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 엄지를 하늘로 곧게 세웠다.

한때 그는 본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당시 정년인 58살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나요?” “외주 제작을 하면 후배들에게 폐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어”

동료와 가족들이 동조할 리 없다. 주변 사람들은 사업이 자리 잡아가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며 만류했다. 하지만 방하착(放下着), 그의 결단을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다.



풍경을 화폭에 담는 김동한

“일을 내게서 떼어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정년 10년 전부터였지.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면 뭘 할 건데? 뭐든 돈, 돈, 돈으로 해결하려 들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돈의 뒤끝은 허탈한 법이지. 나는 물질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어보기로 했던 거지”

“그럴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배경으로 있었을 듯한데요?” 내가 물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별별 일을 다 겪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저마다 사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나는 일 욕심을 내려놓고 싶었어. 그리고 내 옆에 뻗은 가지, 내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고 싶었어”

낮선 곳에서 장기체류, 다른 세상에 널린 행복과 좋은 사람들과 만남

“적당히 편케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하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은퇴 후 지난 15년간 뉴욕을 13번 다녔고 밴쿠버에서 6개월, 한반도의 많은 섬과 해발 900M 대관령 산속에서 장기 체류로 나 홀로 사계절을 10년 넘게 보냈어.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고 혀를 내둘렀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 세상에는 행복한 일이 널려 있어.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고 많다는 거야”

정년 전에 모아둔 비자금에 연금을 합쳐 쓰고 있는 그는 ‘돈은 어떻게 버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 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중이다. “가장 많이 쓸 때가 월 300만 원인데 주로 장기 투숙할 때의 월세”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에 오르거나 주변을 여행하고 머무는 곳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 게

일이라면 일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때

서울 목동 집에 있을 때는 저녁 8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산에서 얻은 약초 등 8가지를 섞은 채소즙을 마신 다음 1시간씩 산책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유지한다. 은퇴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 여태껏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고 마음이 편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희끗희끗 기른 코밑과 턱수염이 불그레한 혈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의 얼굴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닮았다.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가 조르바처럼 내게 말했다.

이론보다 실천하고, 생각보다 감각하고, 계획보다 충동에 따르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뜨겁게 겨안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틀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조르바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김동한

상암소식

MBC 꽃집에서 만나요

Neo Blume 「네오블루매 플라워」

유명 꽃가게인 「네오블루매 플라워」 2호점이 MBC 지하 1층에 문을 연다, 서울 역 앞에서 13년째 성업 중인 「네오블루매 플라워」는 독일어로 ‘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로 40년 전 대학 졸업 후 플라워 강사를 하던 박건미 사장이 13년 전에 본인이 만든 브랜드명이다.

MBC 사우회 측과 지난달 25일 전대차 계약을 맺어 내부 공사를 끝내고 이달 22일 오픈할 예정이다. 「네오블루매 플라워」는 MBC본사는 물론 MBC 사우회가 주문하는 각종 화훼류를 공급하고, 매장에서의 일반 판매는 물론 SNS를 통한 인

터넷 주문 판매를 병행하게 된다. 특히 “외국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젊은 층 가운데는 꽃을 선물용이 아닌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구매하는 생활형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MBC 꽃집 2호점이 MBC 직원이나 사



우회원 등의 즐거운 생활 공간이 되어 퇴근 길 발길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MBC 사우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약속했다. ☎ 010-3343-8973

경조사항

- 팔순: 장영준(보도) 46.07.23. 이금희(편제) 46.07.27. 이하걸(관리) 46.08.16. 이경재(관리) 46.08.24. 정보균(관리) 46.09.03.
고희: 배상무(기술) 56.07.26. 홍중선(편제,81사번)56.08.09. 강석범(기술) 56.08.10. 조영연(기술) 56.08.12. 남궁미(ANN) 56.08.19. 권혁화(ANN) 56.08.21. 이종화(대구) 56.08.22. 안광한(편제) 56.08.27. 김종길(편제) 56.09.01. 구본학(보도) 56.09.02. 김성수(보도) 56.09.09. 이무영(편제) 56.09.12. 김기화(관리) 56.09.14.
회갑: 이소진(관리) 65.08.08.
결혼: 최조남(관리) 아들 05.24 이재명(기술) 아들 06.15 유경갑(기술) 아들 06.21
부음: 정남영(관리) 모친상 05.11 양윤주(기술) 부친상 05.14 임정환(보도) 모친상 05.18 정길용(관리) 장인상 05.09 조광민(보도) 모친상 05.26 이무영(편제) 부친상 06.04 김학구(관리) 부친상 06.05 정우석(보도) 부친상 06.12 최병태(관리) 모친상 06.24

2029년 : 김금봉(관리)

주소변경/신규

- 편제 최용원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길8번길 (귀여리) 이유호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306번길 12 (정우오피스텔) 권오용 경기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36 (캐슬앤파밀리에스티 2단지) 김주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10 (평촌트리비아아파트 2단지) 최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113 (영통마젤란21아파트 1단지)
ANN 이현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보도 이용우 경기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2 (리버빌주공아파트) 이승용 서울 서초구 방배로43길 2 (삼호아파트)
기술 박용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 (달빛마을3단지아파트) 장정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환가락아파트) 오승만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 (문정래미안아파트) 양광춘 경기 화성시 동탄오산로 29 (대방디에트르 퍼스트지)
업무 김경한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9 (대치아파트)
관리 이순임 서울 종로구 옥인길 70 (거성빌라) 류근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83 (유승한내들더테라스) 한윤희 서울 강남구 광평로31길 27 (삼성아파트) 김성익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4 (토월마을보원아파트) 김성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 (두진아파트) 이시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은빛마을6단지아파트) 김애정 경기 광주시 신현로 65-24 (신현리1차현대모닝사이드)

연회비

- 평생회비 : 오승만(기술) 이시현(관리) 채환규(편제)
2025년 : 이유호(편제) 박찬순(편제) 이승용(보도) 김채영(ANN) 노영인(ANN) 최운형(ANN) 안중순(ANN) 이인숙(ANN) 서은선(ANN) 박효연(ANN) 이명순(ANN) 반주원(ANN) 박민정(ANN) 안주희(ANN) 최화숙(ANN) 김선희(ANN) 남궁미(ANN) 이승재(기술) 황중휘(관리)
2027년 : 장정기(기술)
2028년 : 권상규(관리) 방영희(편제)



이형균(ANN) 4월초 별세, 향년 75세 1977년 ANN 입사 1981년 한국방송 광고공사 근무



김진희(편제) 5월 8일 별세, 향년 89세 1964년 PD 입사 전설파라 삼천리, 절망은 없다 연출 서울예대 교수 역임



심규성(관리) 5월 28 일 별세, 향년 83세 1969년 입사 감사실장, 경영관리실장 울산MBC 사장



황의철(관리) 6월 15일 별세, 향년 92세 1961년 총무국 입사 비상계획부 근무



최승일(보도) 6월 20일 별세, 향년 88세 1964년 ANN 입사 체육부장, 스포츠국 제작팀장,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중계방송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BC 사우회 를 위한 고품격 상조서비스

만족도100% 국가공인 전문인력 장례지도사가 고품격 장례를 진행해 드립니다.



MBC 사우회 전용 일회용품



MBC 사우회 전용 특별기획상품

- 고급형 일반가 : 4,600,000원 - 특별할인가 300만원
기본형 일반가 : 3,600,000원 - 특별할인가 248만원

거품없는 가격, 알찬 상품 구성으로 MBC 사우회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 문의 : 010-8761-6643

24시간 장례접수 : 1544-4744

### 사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C&G라이프의 박성준 사장



전국 400여 개에서 70여 개로 통폐합된 상조회에 대한 불신, 장례용품과 같은 부차적인 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머릿속을 스쳐 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사우들이 갑작스러운 가족상을 당했을 때 급히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우회의 장례 업무를 대행하는 C&G라이프의 박성준 사장(52세)이 아닐까 싶다. 그는 5년 전 MBC사우회와 장례 대행 업무협약을 맺고 내근직원과 현장 직원 36명이 근무하는 장례 대행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최근 고 송재의 사우의 장례를 맡는 등 그동안 30여 건의 사우 가족의 장례를 대행하였다.

“고 송재의 사우님의 장례를 맡게 된 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회사가 장례를 맡았던 인연으로 자제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시 연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장례가 끝난 뒤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고 전해 주시는 사우 가족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고마움을 사우회 발전 기금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병원 이송, 빈소 준비, 상조용품, 문상객 응대, 발인 차량, 납골당 안내까지 임종선고(사망선고)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전화 한 통이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그의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그는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고, 매장일 경우 협력사와 연락이 필요해 장례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병원 이송, 빈소 준비, 상조용품, 문상객 응대, 발인 차량, 납골당 안내까지 임종선고(사망선고)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전화 한 통이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그의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그는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고, 매장일 경우 협력사와 연락이 필요해 장례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본인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막상 닥치고 보니 나도 허둥댔다”면서 “저 같은 프로도 그런데 사우회 가족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는 저와 직원들은 상주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장례의 토털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죠”라는 말에 신뢰감이 묻어났다.

모든 장례 대행료는 후불제다. 비용은 사우회 회원 가족(본인 포함)은 248만원부터, 일반인보다 15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 전국 MBC사우회원은 물론, MBC 출신이라면 누구나 이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 010-8761-6643

기교 열정 가득했던 PD 김진희 선배를 추모하며

▶ 김승수PD가 쓴 추모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5월 19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故최승일(보도) 50만원	 석남수(기술) 30만원	 최동윤(관리) 30만원	 김종복(편제) 20만원
 조항민(보도) 20만원	 조강래(업무) 20만원	 조일수(ANN) 10만원	 김동수(보도) 10만원
 황진욱(기술) 10만원	 홍춘표(관리) 10만원	 안호선(관리) 10만원	 봉현숙(편제) 1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등지

#### 사우회 가입 설명회

지난달 16일 MBC본사에서 사우회 소개와 가입을 권유하는 설명회가 10여 명의 퇴직 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우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MBC 동료들에게 편집자의 단상을 올려봅니다.



사우회 가입을 설명하는 류근중 사무처장

### MBC 동료들에게 드리는 편지

모든 게 디지털 문화로 빠르게 바뀌며 “나 살기 바쁜 세상이지요” 특히 2012년 여섯 달 넘은 파업을 거치면서 선후배 간의 유대도 예전 같지 않은 마당에 사우회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파업 이후 1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용서하면 그뿐, 마음을 닫을 까닭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낸, 같은 전파를 타고 드라마, 예능, 스포츠, 뉴스,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고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맡은 역할을 다했던 동료입니다.

본사의 사우회에 관한 관심은 지금도 적다 할 수 없지만 한때 사우회 가입비를 본사가 부담해 주는 등 각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의 삶을 ‘우리’로 이으려는 의지이자 예의일 것입니다.

사우회는 사우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인생 2막, 3막의 일을 하는 동료에게 박수를 보내고 등산을 함께 하며 둘레 길을 함께 걷고, AI 교육을 받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텃밭을 일구고, 전시회,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어머니 품 같은 너그러운 곳입니다.

MBC가 존재하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우회에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믿습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MBC 사우회보 편집장 올림

###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승용(보도) 1999년 경력기자 입사 보도국 사회부장, 논설위원, 경제에디터, 선임기자 등 현 포항문화방송 사장	 이시현(관리) 1988년 총무부 입사 구내식당 조리업무 2025년 정년퇴직
 오승만(기술) 1985년 기술국 입사 조명담당, 영상기술부장, 제작기술부장 2020년 정년퇴직	 채환규(편제) 1991년 TV PD 입사 시사교양4부장 콘텐츠협력센터장 현 안동문화방송 사장

#### 정동레터

♥연극에, 여행에, 둘레길 걷기에, 강의에, 사우 들을 만나보니 제2의 제3의 인생을 알차게 보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취재하는 제가 제일 재미있게 살고 있네요. 다음 호부터 취재가 아니라 전수를 받으러 다녀야겠어요^^

♥사우회보 기사거리를 위해 아는 인맥 모르는 인맥, 매주 초청사우 모시면서 열심이신 양영철 사우회장님, 더운 날씨보다 그 열정이 더 후끈!

♥편집회의에서 사우들의 취재 정보를 알려주신 한귀현 부회장님. 아파트 정원에 직접 심고 관리하신다는 유실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를 듣느라 나주곰탕 식은 줄 몰랐네요.. 양봉자격증 까지 따셨다니 꿀 한스푼 넣어 인터뷰 요청하면 받아주시려나...

♥사우회와 계약한 꽃집 사장님은 끝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보내주시지 않네요.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마케팅 전략이신지... 어쨌든 본사 지하1층. 꽃보다더 눈부신 무언가가 우릴 기다리고 있겠지요.....

편집부

# 국가적 혼란에도 믿음직한 MBC 뉴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3년 연속 신뢰도 1위!!!

“계엄 뒤 혼란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PUBLIC OPINION ON BRAND TRUST

Only the brands listed were included in the survey.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list of the most or least trusted brands, as it is not exhaustive.

Brand	Trust	Neither	Don't Trust
Channel A News	43%	27%	29%
Chosun Ilbo	40%	23%	37%
Dong-A Ilbo	41%	26%	33%
Hankyoreh	45%	27%	29%
JoongAng Ilbo	40%	29%	31%
JTBC News	59%	22%	19%
KBS News	48%	23%	29%
Kyunghyang Shinmun	43%	31%	26%
<b>MBC News</b>	<b>61%</b>	<b>16%</b>	<b>22%</b>
MBN News	46%	28%	25%
Regional or local newspaper	39%	36%	25%
SBS News	54%	27%	19%
TV Chosun News	42%	23%	35%
YonhapNews TV	52%	27%	20%
YTN	55%	26%	19%

brand trust. How trustworthy would you say news from the following brands is?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0 is 'not at all trustworthy' and 10 is 'completely trustworthy'. Details: 6-10 coded as 'Trust', 5 coded as 'Neither', 0-4 coded as 'Don't trust'. Those that haven't heard of each brand were excluded. Whether respondents consider a brand trustworthy is their subjective judgement, and the scores are aggregates of public opinion, not an objective assessment of underlying trustworthiness.

바른 뉴스 MBC  
힘 있는 뉴스 뉴스데스크

월~금요일 저녁 7시 40분 | 토·일요일 저녁 7시 55분